COLUMN 칼 럼

「환경 보전」 이대로 좋은가!

Environmental Conservation

宋旼求 / 건축사사무소 송건축
by Song Min-Koo

194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은 4대문안에서만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장충동 1가, 동소문밖 즉 돈암동쪽으로 주거지가 팽창해 나갔을 뿐이었다. 그나마도 당시 돈암동쪽은 공동묘지를 개발했으며, 장충동 1가쪽도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광희문(光熙門 또는 屍軀門) 밖으로 시체를 운구했거나 버렸기 때문에 성곽근처에는 때때로 인골이 나오곤 한 곳을 개발한 것이다.

동대문에서 뚝섬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들의 중요한 부식인 김치, 깍두기를 담글 무, 배추를 재배하는 밭이여서 개발은 엄두도 못내었다. 청량리역은 장작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면 가정마다 가장들은 청량리로 장작을 사랴 또 동대문밖으로 김장감을 사랴 바쁘게 뛰어야 했다. 아낙네들은 일가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김장을 담궈주면서 남편험담에 정신이 나가버린다.

이태원쪽은 남산기슭에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의 군사훈련에 쓰이는 연병장, 사격장들이 있어 개발은 불가능하였었다. 그러나 차츰 일본인들의 한국이주가 증가하자 개발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대중교통수단이라고는 전차와 버스 뿐이였기 때문에 서울이 비대해질 수는 없었다. 인구가 100만이 넘었을 때 일본인들은 불꽃을 터트리고 축제를 벌였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1922년 Le Corbusier 가 '300만인의 도시'를 계획하고 Salon d' automne에 전시한 것이 많은 것을 시사하였지 않았겠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한강건너는 야산들이 능선을 이어 뻗어나가 관악산, 우면산, 구룡산, 청량산에서 맞닿게 되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 시내도 도로가 포장이 안된 곳이 많아 비가오면 지렁이가 땅위로 나와 헤맸으며, 포플라나무에는 매미들이 모여서 우는 소리가 가득 찼었다. 가을에는 고추잠자리가 집마당 양지에 날아들며,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나무가지에서 까치가 서로를 찾느라 울어대곤 하였다.

겨울 어느날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금의 방배동부근의 눈이 덮인 야산에서 토끼몰이를 하였다. 각학년, 각과 모두 합쳐서 400명도 안되는 학생수로 야산 능선에 쳐놓은 그물에 토끼를 모는 것이다. 얼빠진 토끼 한마리가 어디에선가 뛰쳐나와 능선으로 도망치다 그물에 걸리고 말았으나 우리가 얻어먹은 토끼탕은 토끼가

아니라 돼지고기로 끓인 된장국이였다. 말하자면 서울은 그당시 그런대로 환경은 보전(保全)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던 서울이 해방되자 급속히 변해갔다. 일본인들이 철수해 간 이태원 일대는 월남민들에 의해 판자집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서서 이른바 '해방촌'이라고 불리는 Slum이 형성되었다. 그밖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나 6·25동란이 발발하자 서울은 마치 폐허와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들은 역경을 이겨냈다. 잇따른 정치적 불안정도 우리는 참고 넘겼다. 전화위복이라고나 할까 뜻밖에도 중동 산유국들에서 많은 건설사업을 수주하게 되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게 되고 주요 간선도로에 따라 높은 빌딩들이 난립해 서게 된 것이다. 그 후로는 비오는날 길에 지렁이를 볼 수 없게 되고, 매미, 쓰르라미 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으며 번화한 거리에 까치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환경파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필자가 설계한 숙명여고가 1980년 봄에 준공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숙명여고 앞을 지나가는 남부순환로는 착공되지도 않아 학교 앞에서 남쪽 구룡산기슭까지는 논과 밭들만이 있었다. 그러하였던 것이 지금은 빈 땅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건물들이 들어서 버렸다.

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대규모녹지대를 조성하지 못하였던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아쉽기만 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본받을 점이 많아 Chicago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Chicago는 Michigan호반에 접해서 시의 중심부가 형성되고 초고층빌딩이 밀집해 있어, 현지에서는 그 지역을 Metropolis라고 부른다. 초고층빌딩이 밀집해 있다고 하여 업무시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호반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도로를 Lake Shore Drive라고 하는데, Mies van der Rohe가 설계한 860 Lake Shore Drive Apart. 가 그 도로에 면해서 26층 높이로 서 있다. 또 그 근처에는 학비가 비싼 것으로 이름난 North Western대학의 캠퍼스도 있다.

그리하여 Metropolis 서쪽에 O'hare국제공항이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행기가 이착륙한다. 공항과 Metropolis외각에 각종 용도의 건물들이 둘러싸 있으며, 그 밖으로 주거전용지역들이 산재해 있다. 주거전용지역 곳곳에 보존임야, 공원, 초·중고등교육시설, 교회들이 있어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이 주거전용 지역에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뜰에 새집을 세워놓는데, 150cm 높이의 철파이프 위에 나무로 만든 새집을 올려놓고 모이를 한포대식 사와 새집에 모이를 넣어준다. 그래서 아마도 보존림에 서식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이름모를 새들이 날아든다.

뜰은 어느집이든 잔디를 심어 나대지(裸垈地)를 남기지 않으며, 주택에 면한 인도 역시 사람이 걸어다닐 폭 90cm정도만 포장이 되어있을 뿐 잔디를 심는다. 인도의 잔디를 깎는 것은 인도에 면한 집주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도로에 심은 가로수는 도토리나무가 주며 가을에는 도토리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지않고 새집에 올라가 야조들의 사료를 먹어치운다. 그러므로 도토리는 미국에 이민한 한국할머니가 몰래 긁어모아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는다.

야조를 보호하기 위해 쥐틀로 다람쥐를 잡는데, 다람쥐를 죽여서는 안된다. 잡아서 멀리 보호림으로 버리러 자동차로 실어날라야 한다. 그렇게 하여 미국은 각 가정마다 환경보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Mies의 860 Lake Shore Drive Apart와 같이 층수를 더 높이고 더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하여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지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부질없는 생각일런지….